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HOLY BIBLE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1)

2009년 1월~3월

1	( )	5
2		10
3		15
4		20
5	가	25
6		31
7		36
8		41
9	-	46
10		52
11		57
12		62
13		67

가

가

[ ]

가

31

36

41

46

52

57

62

67

: 054) 435 - 1843

: 054) 434 - 4521

www.sdarmgc.org( )

www.sdarm.or.kr

# 서문

지구 역사의 마지막인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영감된 말씀들은 크게 평가할 가치가 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롬 13:12].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도전적인 미래에 전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뒤따르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에 은혜롭게 비취고 있는 모든 축적된 빛의 광선들을 모으고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 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총회 매일 회보, 1893.1.29.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회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견고한 기초, 우리가 확신 있게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 있는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위탁된 근본적인 진리를 통하여 터가 굳어지고 힘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사자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겪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의 토대위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날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났던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섰다.” -초기문집, 258, 259.

이 중요한 원칙들을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써 각 신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기도한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콩고의  
카사이-옥시덴탈  
대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콩고<Congo>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국명은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이다. 북쪽

은 카메룬·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동쪽은 대부분 자이르, 서쪽은 가봉과 국경을 접한다. 카사이-옥시덴탈 대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이기도 한 콩고 공화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카사이-옥시덴탈은 전쟁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벗어난 지역에서 인구가 조밀한 콩고 공화국의 세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다이아몬드 생산지로도 또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이 진주들의 생산은 결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지는 못해 왔다. 기업의 부채와 더불어 생활물가가 비싸고 전력의 부족과 지리적 위치로 대다수의 인구가 빈곤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개혁기별은 1990년경에 세 형제의 독일선교사로부터 이 지역에 소개되었으며 그 후로 기별은 카사이-옥시덴탈 대회가 앙골라 다음으로 교인수가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우리는 SDA개혁운동의 토대를 세우고 2005년에는 세계 대총회에서 40 그룹을 한 대회로서 조직했다.

한 대회로서 조직된 3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용기있는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건물들이 없고 선교본부가 없으며 운송이나 교통수단이 없다.

우리의 달란트와 재능을 보강시킴으로 우리 교회의 장비가 진리에 충실한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고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선교사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편함의 주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1월 첫째 안식일 연금을 드릴 때에 이곳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후한 연금을 드려줄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카사이-옥시덴탈 대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 신성(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하늘에는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특별증언 B,  
No. 7. 63.

참조할 연구교재: 초기문집, 54, 55, 125-127.

일요일

12월 28일

## 1. 하나님, 아버지

가. 가? 16:27[ ]; 1:17.  
가?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세상에 속한 사물들일 뿐이며,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사물로 묘사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복음전도, 614.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품성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자신이 꽃이나 잎이나 나무 가운데 친히 계신다고 말할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의료봉사, 94.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었던 때가 과거에도 없었다. 자연의 음성은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뿐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1.8.

가? 1:20-25; 17:5, 6.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오셨으며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1.8.

## 2.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 가? 2:21, 22; 3:5.

“아담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는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인류를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일을 맡으셨다. 때가 차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심으로 그의 위치는 인류의 머리에 서서야 했다.” - 영문시조, 1901.5.29.

“예수께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가 없으셨다. 완전은 그가 행하신 모든 것에 나타났다.” - 하늘 조정에서, 166.

가? 1:1 - 4.

가? 1:23; 9:6; 3:16; 2:13, 14.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지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인성은 신성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 그가 그의 충성에 성실하고 변함 없이 서 있는 동안 그의 신성은 잊어 버릴 수가 없었다.” - 영문시조, 1899.5.10

“여호와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름이다.” - 영문시조, 1899.5.3.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 영문시조, 1900.8.29.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4).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불멸의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탄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탄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296.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6.4.5.

## 3. 성육신

가. 가? 3:16; 4:9, 10; 3:8.

“신성이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동정으로 격동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주셨다. 이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셔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간을 높이 들어올리기 위하여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모든 자원을 주셨다. 이 사랑의 깊이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이 더 이상 행하실 것이 있다고 인간이 말할 수 없게 하실 것이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우실 수 없다. 그것은 신성애다 인성의 옷을 입힌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실 수가 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10.22.

가? 19:10; 2:14, 15; 42: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의 입장을 취하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6.6.30.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복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갈바리에서 흘려주신 귀중한 보혈을 나의 모든 탄원으로 삼겠다. 나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바 된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 청년 지도자, 1894. 11. 8.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율법의 요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이 한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유혹을 대항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그분의 봉사 본질을 사람들에게 밝혀 주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 교회증언 8권, 207, 208.

#### 4. 하나님이신 성령

가.

가?

16:13; 14:16, 17.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이 권세들은 순종하는 자와 협력하게 될 것이다.” - *하늘 조정에서*, 336.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 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 *시대의 소망*, 671.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아무도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닫기까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영혼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16.

가? 5:3, 4.

가 가? 13:2; 8:16, 26, 27;

2:10.

“성령께서는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11]” - *원고모음* 20권, 68, 69.



5. 이것이 영생이다.

가. 가? 3:36; 6:47; 17:3.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시대의 소망, 347.

가? 6:37 - 40;  
14:1; 17:24.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당시에 우리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7.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써 이 세상의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이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動員)되었다.” -정로의 계단, 2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24

1. 하나님 아버지께 관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잘못된 개념을 제거해야 하는가?
2.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요점들을 숙고해 보라.
3. 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4.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토록 중요하신가?
5. 영생에 대한 우리의 구속에는 무슨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떴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現實)이 되기 때문이다.” - 실물교훈, 59.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185-192.

일요일

1월 4일

## 1.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가. 가? 3:15-17.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단순히 성경의 일부분만을 떼어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온 성경을 받아들이고 온 진리를 믿는 것뿐이다. 만일 그대가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이라도 경히 여길 것 같으면 그대의 발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교통기관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음성과 같은 생생한 기별이다. 성경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겸손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영원한 실체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 영문시조, 1893.9.18.

24:27, 45.

119:11; 3:15.

가? 5:39;

가 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먹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처럼 결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줄 것이다.” - 영문시조, 1895.9.5.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 실물교훈, 100.

## 2. 성경의 중심주제

가. 가 가?  
 2:1, 2.

“십자가에 못박히신 메시아는 모든 기독교 사상의 중심점이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가장 긴요한 교훈들이란 세상으로 지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문*, 23, 24.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 *교육*, 125.

. 가? 1:23, 24;  
 15:3; 2:20.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를 넣어라.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과 자비와 영광을 주제로 하여 설교하라.” - *가려뽑은 기별* 1권, 158.

“알기 쉽고 단순한 말로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각 영혼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그대들의 조력자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춰어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알도록 그대에게 초청하신다. 그대의 생각을 설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분의 의의 빛이 그대의 마음에 비추게 하고 그대의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산 믿음이 모든 설교의 바로 기초가 되게 하고 본질이 되게 하며 바로 개요가 되고 요지가 되게 하라. 그것이 모든 호소와 모든 기도에 짜여 들어가야만 한다.” - *복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증언* 7권, 8, 9.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으로 연구된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 *성경주석* [E. G. 화이트] 6권, 1084.

### 3.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 가 가?  
 119:105, 116, 133; 2:1-5.

“청년이거나 노년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과 영혼 속에 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다. 그대들의 기도는 ‘오 주여, 내가 주께 치욕을 돌리지 않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가 되게 하라. 생각과 말과 정신과 모든 거래를 통해 주께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그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라. 그대들의 품성의 직물 속에 이기심의 한 올의 실이라도 짜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라. ‘진리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엄격한 성실로 내 영혼을 지키게 하소서. 미래의 영생을 위한 준비로서 이 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순전하고 면밀한 금언들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드러지게 하라.” -리뷰 앤드 헤럴드, 1906.7.19.

“그 [영국의]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은 왈텐스인들과 위클리프와 얀 후스와 루터와 츠빙글리와 그들과 연합했던 동지들이 주장한 원칙들과 똑같은 것으로, 그것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 절대 무류(絕對無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49.

34:16; 55:10, 11.

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198.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오류가 없다. 무한한 지혜와 성결과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측정하시는 표준으로 우리를 이끌며 함께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어두움 가운데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명백하게 정의한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늘 조정에서, 137.

“현재까지 성취되리라고 예언된 모든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교육, 178.

## 4.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가.

17:10, 11.

가? 28:9, 10, 13;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한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며 이런 방법으로 빛은 감추어진 말씀의 의미에 비출 것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다른 성구들을 비교함으로써 모든 면에 내포된 사상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성경의 참된 의미는 분명해 질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 85.

“진리의 값진 보화는 표면에 묻혀있지 않다. 그대는 그것들을 깊이 파야 한다. 그대의 성경을 각 문장은 문장과, 각 절은 절과 비교하라. 그러면 그대는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대는 기억의 방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걸어둠으로 빛의 귀중한 보화들을 간직해야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9.4.16.

“청년들 앞에 성경을 열어주고 그들의 주의를 성경의 숨은 보배로 이끌어 진리의 보석을 탐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리하면 철학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학문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의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웅대한 문제, 영감으로 발표된 말씀의 권위 있는 단순성과, 마음에 호소하는 고상한 주제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날카롭고 분명한 빛, 이런 것들이 총명을 깨우쳐서, 거의 이해될 수도 없고 일찍이 완전히 설명되지도 못한 정도로까지 그 지적 능력이 계발될 것이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4, 255.

12:28.

가 가? 1:5-8; 6:18: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에 있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경솔한 것과 쓸데없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성경 말씀의 어떠한 부분은 용이하게 이해되면 서도 다른 부분은 좀처럼 그 참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끈기 있게 연구하고 명상하며 또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연구자들은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1.

“만일 그대가 안내자로서 성경을 겸손하게 열렬한 기도로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산 실체를 열어줄 것이다.” - 영문시조, 1893.9.18.

## 5. 할 수 있는 한 연구하라

가. 가? 4:2-4.

“많은 사람들은 성경진리가, 죄악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각시대의 대쟁투, 595.

“바른 교훈’은 성경의 진리, 곧 경건한 신앙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는 진리를 말한다.” -복음 사역자, 311.

가? 8:11, 12.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 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 -초기문집, 281, 282.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71.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31

1.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는가?
2. 무엇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가?
3. 왜 예언은 결코 무시될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고무적인 것인가?
4. 우리가 가져야 할 연구와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묘사하라.
5. 성경 연구를 진지하게 해야 할 바로 지금이 왜 대단히 중요한가?

## 죄의 기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2-14].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3.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3-43.

### 일요일

1월 11일

#### 1. 고귀한 천사

가.

가?

28:13, 14.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의 빛 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째가는 존재였다.” - *시대의 소망*, 758.

“비록 [루스벨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 *부조와 선지자*, 35.

가?

14:13, 14.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다.” - *시대의 소망*, 435, 436.

## 2. 선동과 반란

가.

가? 55:21.

“[루스벨은]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大權)을 갈망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35.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와 그의 법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8.

가? 12:4 [    ].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 교회증언 3권, 115.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그런 표현들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 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38.



### 3.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가. 가? 19:7; 111:7, 8; 7:12.  
가?

“사단은 점점 반역적 행동이 대담해져서 창조주의 율법을 깔보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이 율법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도록 그냥 둘 것이요, 또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 입장의 최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살아남는 이들, 18, 19.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42.

16:17.  
1:17.

가? 5:17, 18;  
가? 89:34;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준다. 그분의 죽으심은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며 율법의 변함없는 특성의 증거를 준다.” - 영문시조, 1879.8.7.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해 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만일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한다.” - 영문시조, 1887.8.25.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9.

## 4, 하늘에서의 전쟁

가.

가?

12:7 - 10; 10:18.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9.

“하나님께서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00, 501.

가? 45:6; 89:14.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싫어한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였다.” - 초기문집, 145.

“사단은 속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대적하여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타락 후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자신의 반역을 계속해 왔다.” - 교회증인 1권, 342.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도케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 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 부조와 선지자, 403.

5. 하늘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됨

가. 2:4; 6. 가? 5:8. 가? 12:9;

“[루스벨이]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6.

“사단은 진리의 편으로 그의 영향력을 주기를 거절당했을 때 하늘은 더 이상 그의 본향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반역하기 위하여 그들의 충성으로부터 벗어난 천사들을 모았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901.4.16.

. 가 가 가? 가?  
12:10. 가? 12:31.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던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 시대의 소망, 76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37

1. 무엇이 루스벨의 목표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2. 루스벨의 유세의 장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3. 어떤 의미에서 루스벨의 반역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을 손상시키고 있는가?
4.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거짓된 주장인가?
5. 충성된 천사들은 언제 사단에 관한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

# 세계를 창조하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사 45:11, 12].

“에덴동산이 창조주의 손에서 지음을 받을 당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완전한 창조를 훼손시킬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 - 교육, 22.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44-51.

일요일

1월 18일

## 1.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심

가. 가? 1:1, 5; 20:11; 31:17.

“하나님께서 어떻게 엿새 만에 창조 사업을 완성하셨는지를 죽을 우리 인간들에게 밝혀 주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창조사업은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불가해한 일이다.” - 그분을 높임, 52.

“[창조 주일의] 이 기간 중의 하루도 오늘날과 같이 아침저녁이 있는 하루였다는 사실이 영감 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 교육, 129.

가? 7  
가? 11:3; 1:20.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사업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신 첫 번째 1주간은 다른 매 1주간과 꼭 같았다. 창조하시고 쉬신 크신 하나님은 시간의 종말까지 연속적인 1주간들의 표본으로서 1주간을 할당하셨다.” - 예언의 신 1권, 85.

## 2. 실제적인 7일

가. 가

가? 20:11.

“인간의 철학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이 걸렸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와 옛새 동안에 [여섯 개의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이 아니다. 그런 경우라면 넷째 계명에 구체적으로 지적된 날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5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라.”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35.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궤변은 사단의 기만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문제를 불분명하게 내버려 두어 인간들이 저마다의 이론대로 그것을 취급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 원고모음 3권, 307.

가? 2:1-4.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첫 주일의 기록 끝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제너레이션)이 이러하니라’ (창 2:4, 영문 성경 참고)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조 때의 날들이 글자대로의 날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는다. 각 날은 제너레이션(세대 또는 발생의 뜻)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이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발생(제너레이트)시키셨거나 산출 하셨기 때문이었다.” - 부조와 선지자, 112.

“매 주일의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쉬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 그리스도인 교육, 190.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 그리스도인 교육, 190.

### 3.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 가 가? 33:6, 9; 40:26. 가  
가?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 왜 그런지 혹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와 까닭을 꼭 말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창조의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남부파 수훈, 1902.4.24.

“인간이 창조의 역사를 규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연 법칙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들은 불확실한 망망대해에 떠있는 것이다.” -예언의 신 1권, 88.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역사하고 만물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은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보편적 원칙이나 활동의 원동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치료봉사, 413.

가? 33:13, 14; 47:2; 65:9 - 13; 95:3 - 5.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창조사업을 마치셨으나 그분의 에너지는 아직도 그분의 창조물들을 불드시는 데 행사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번 시동이 걸린 기계 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식물이 무성하고 잎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그분의 말씀은 자연력을 지배하시며 골짜기를 비옥하게 한다.” -영문시조, 1884.3.20.

“우리가 파종하고 식물을 가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창조하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땅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분께서는 그 씨를 돌보신다.” -교회증언 6권, 186.

## 4. 창조의 걸작품

가. 가? 1:26, 27;  
2:7.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 교회증언 5권, 311.

“아담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에 그는 준수한 키와 균형진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두 배 이상이나 컸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용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빛은 희거나 누렇지 않고 홍안(紅顏)의 건강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간 작아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올라갔다. 그도 또한 훌륭한하고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참으로 아름다웠다.” - 예언의 신 1권, 25.

가 가? 45:18; 37:29;  
4:11.

가? 21:1 - 5.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 성경주석 [E. G. 화잇], 1권, 1082.

“에덴의 학교 사정들이 다 그대로 내세의 학교에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신 것이었으나 결국 그 조건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내세의 선물은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것이다.” - 교육, 302.

### 5. 한없이 아름다움

가.  
3:11.

가? 1:31;

“에덴 동산이 창조주의 손에서 지음을 받을 당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교육, 22.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4.

가

가? 2:8, 15.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거룩한 무죄 상태의 인간은 고용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진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며,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에게 일을 할당하셨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는 수고해야만 했다.” -교회증언 3권, 77.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으셨다. 그분은 후하신 손으로 그들 주위에 당신의 하사품을 둘러놓으셨다. 유용하고 아름다운 나무들, 자발적으로 솟아나서 그들 주위에서 마음껏 향기를 발산하며 만발하는 아름다운 꽃들은 쇠퇴라고는 알지 못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풍부하였다. 그들은 에덴을 소유했다. 아담은 그의 아름다운 영토의 군주였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38.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45

1. 땅이 옛세 동안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왜 창조의 각 날은 제너레이션(세대 또는 발생의 뜻)이라고 불리웠는가?
3. 어떻게 자연은 계속적인 활동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4.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5.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환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아담의 가문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눅 3:38; 한글 킹 제임스 역].

“영감의 말씀이 밝혀 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 동물(軟體動物)이나 사족수(四足獸)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눅 3:38, 영어 성경 참조)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5.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67, 533, 646-648.

일요일

1월 25일

## 1.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

가.

가? 8:4, 5.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만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상에 축복을 안겨 주고 시여자께 영광을 반사하도록 할 속성을 부여해 주셨다.” -교회증언 3권, 50.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인체기관들은 잘 계발되어 있었다. 땅은 오직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지적 존재자들이 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부부를 증명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시험해야 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당신의 율법을 불순종할 존재로 채워진 세상을 갖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문시조, 1879.1.23.

.

가? 1:26, 27; 2:7.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 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부조와 선지자, 45.

2. 배필-동반자

가. . 2:21 - 23. 가?  
5:28, 29.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반려자인 아내를 주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와 함께 누리게 하셨다. 이 거룩한 부부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행할 것을 주셨다. 그들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일하는 것에서 그들을 제외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시다. 하늘 천군의 각 자에게는 지정된 일이 주어졌다.” -원고모음 10권, 326.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 이시다. ‘혼인은 귀’ (히 13:4, 난외주)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의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 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부조와 선지자, 46.

가? 2:23, 24.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세기 2장 24절) 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산상보훈, 63, 64.

“모든 결혼 약속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결혼은 평생을 향하여 내딛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340.

## 3. 첫 번째의 주권

가.

가? 1:28; 8:6-

8.

“아담은 에덴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그분이 다른 생물에게는 결코 주신 일이 없으신 지적 능력을 주셨고 그를 명실 공히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 성경주석[E. G. 화잇] 1권, 1082.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임으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다.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단 4:17)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시대의 소망, 129, 130.

가? 4:8; 7:27.

“시험에 굴복함으로 [아담은]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갔으며 그가 가졌던 주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주어졌다. 이처럼 사단은 ‘이 세상 신’ [고후 4:4]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땅의 주권을 강탈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치루신 그분의 희생으로 단지 인간만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실했던 주권을 회복하셨다.” - 영문 시조, 1908.11.4.

“원래 사람에게 그의 나라로 주어졌으나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강한 원수에게 점령당해 있던 땅은 위대한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74.

“증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 나라” (미 4:8)의 후사가 되어 주기를 간청하신다.” - 예언의 신 4권, 309.

## 4. 결혼식 선물

가. 가  
가? 2:8.

“하나님은 미의 애호자이시다. 당신의 손으로 이룩하신 업적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시조를 위하여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두셨다.” - 재림신도의 가정, 27.

“이 [에덴] 동산에는 각종 수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곧게 자라지만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형형색색의 선명한 색조를 띤 구미를 당기는 열매로 휘어져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질하여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잎과 열매로 덮인 산 나무들로 그들의 거처를 손수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생명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부조와 선지자, 47.

가?

2:7; 22:1, 2.

“에덴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창 4:16 참조).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룩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하나님의 영광이 그 룩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쉼기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출 25:22; 시 80:1; 사 39:16 참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 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계 2:7, 21:1, 22:14)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62.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 선지자와 왕, 730, 731.

## 5.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됨

가.

가? 19:10; 1:12; 3:1, 2.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인간 가족이 파멸자의 힘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무한한 고통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그분 앞에 스스로를 낮출 것이다.” -교회증언 9권, 283, 284.

가 가? 5:13.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 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8.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52

1.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제도를 만드셨는가?
3. 이 타락한 지구는 실제로 사단에게 속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아담의 타락한 아들과 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5. 무엇이 영원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한 운명이 될 것인가?

2009년 2월 7일 안식일

## 구호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가난한 자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발견하게 된다. 그 대목 중 한 곳을 생각해 보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퍽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너넉히 꾸어 주라” [신 15:7, 8].

우리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돕도록 요청을 받고 있지 않으나 “마땅히 도와야 할 가난한 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 였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힘에 겨운 수고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여행 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을 부양하고 매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는 끊임없는 근면과 가장 철저한 절약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본을 지적할 수 있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 -사도행적, 395, 396.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도와야 할 가난한 자”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들 가운데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잘 살펴서 질병이나 직업을 잃었거나 자연계의 재해를 당한 자들처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번 첫 번째 안식일 연금이 수합될 때 우리들 가운데 “마땅히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돕는 정신을 주시도록 비는 마음 간절하다.

- 세계대총회 구호봉사부장 -

# 시험과 타락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9.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52-62.

일요일

2월 1일

## 1. 하나님의 계명

가.

가? 2:16, 17.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8, 49.

가? 22:35 - 38.

가? 6:23; 19:16.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게 된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법의 종이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의 두 큰 원칙들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한다. 이 순종과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 -영문 시조, 1878.1.24.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아래 있게 될 때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 생에서는 물론 영원한 복된 내세의 생애에서도 그 자체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353.

## 2. 시험에 굴복함

가. 가  
3:6; 11:3.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일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55, 56.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 초기문집, 148.

가? 6:16, 20.

가? 3:12, 13.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와 공포의 느낌으로 충만하였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저희의 죄를 핑계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 보실 때에 아담의 대답은 그 범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분은 그 아내에게 돌렸다... 왜 당신은 뱀을 지으셨나이까? 왜 당신은 그 뱀이 에덴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 정로의 계단, 40.



3. 선악을 알게 됨

가. 가 “ ” ”  
 가? 3:5, 7.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 놓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54, 55.

“[창 3:3-5 인용됨]. 사단은 선과 악이 섞인 지식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교육, 24.

“ 가 ” 가 “ 가  
 가? 3:4, 5. 가? “ 가  
 ” 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치었다.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다.” -부조와 선지자, 60.

## 4. 낙원에서 추방됨

가. 가 가? 2:9,  
16.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힘을 가졌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한 죽을 수가 없었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7.1.26.

“인간은 불멸성을 얻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의존했었는데, 주님께서서는 인간이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불멸의 죄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셨다.”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34.

. 가 가?  
3:22 - 24.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다.” - 시대의 소망, 741.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 씬을 들었다. 무죄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혹에 굴복하였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것이었다.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그들을 흑한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 부조와 선지자, 61.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가 범죄 전에 그의 에덴 가정에서 그를 돕도록 임명되었던 천사들은 그가 돌이켜 생명나무에 접근하므로 죄가 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낙원의 문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임명함을 받았다.” - 비교 토론, 15

### 5. 땅에 저주가 내림

가.

가? 3:14 - 19.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에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애 생생하게 심어 주었다.” - 부조와 선지자, 62.

가?

가? 6:28 - 30.

“[아담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와 육축과 지면에 더욱 중하게 내리게 될 것이 그에게 보여 졌다. 그리고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중에서도 또한 인류의 고통과 비애의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창궐하는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을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남아 있을 것에 대하여도 보았다.” - 예언의 신 1권, 52.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께서는 돌아나는 새싹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고, 우리의 감각을 그토록 감미롭게 하는 그 향취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다. 저주로 인하여 망가지고 못쓰게 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읽을 수가 있다. 하지만 꽃들의 미묘한 색깔과 향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자비를 땅에서 온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11.8.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5:59

1.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정성에 중요한가?
2. 잘못과 결점, 혹은 우리의 행하는 죄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인간적인 경향을 확고부동하게 저지해야 하는가?
3. 무슨 의미에서 우리의 눈은 항상 선한 것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4. 죄를 지은 후에 생명나무가 차단된 것이 왜 축복인가?
5. 우리가 죄의 더 괴로운 결과를 봄으로 이를 통해 무슨 격려함을 받게 되는가?

## 구속의 경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 14].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동정으로 격동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드리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19-26.

일요일

2월 8일

### 1. 사랑의 고안

가.

가? 16:25, 26; 1:26.

“우리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속의 놀라운 사업을 홀로 세우지 않으셨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서 그들 양편 사이에 의논이 있었으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었다.” -영문시조, 1897.12.23.

“은혜의 목적과 계획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인류의 타락은 그 타락의 모든 결과와 더불어 전능하신 분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고안된 생각이거나 경륜이 아니요 원자와 같이 작은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한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졌다.” -영문시조, 1893.2.13.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동정으로 격동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드리셨다. 이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도록 결정하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 2.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가. 가? 1:1-4.  
 ” 가? 5:2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 영문시조, 1900.8.29.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뚜렷한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고 존재하셨으며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탁월한 영광이셨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을 호령하시는 사령관이셨고 천사들의 숭배와 존경을 당신의 권리로써 받으셨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906.4.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불멸의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갖고 계셨다. 육체적인 생명은 인간 각자가 받는 어떤 것이다.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시는 것이므로 영원하거나 불멸하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배할 힘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탄 데서 빌리신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탄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탄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296.

가 가? 9:6.  
 가 가? 2:9.

“여호와와는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름이다.” - 영문시조, 1899.5.3.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격을 부인하는 교리는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의 신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 영문시조, 1895.6.27.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한편, 그분의 선재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말씀은 하나의 거룩한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 아버지와 연합되어 존재했다. 태초부터 그분은 언약의 증보자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주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인간이나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그분을 높이라, 74.

## 3. 말씀이 육신이 되심

가.  
2:14.

가? 1:14; 2:5-8;

“인간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함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숙고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랍게 나타난다. 베들레헴 말구유 속에 힘없는 아기와 그리스도의 신성사이에 있는 넓은 차이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가련한 아기와 그 거리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신성의 일체가 되어 충만하셨던 분이 구유 속에 무력한 아기로 나타나셨다. 어떤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위엄과 영광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분이 지금도 인성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는가! 신성과 인성이 오묘하게 섞이어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다.” —영문시조, 1896. 7. 30.

“모범적인 인간이신 주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우리 인성을 취하셨으며 계곡들 가운데서도 후미진 잘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근 30년 동안 사셨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었으나 당신 자신을 위대하거나 높은 인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 또한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수’라는 칭호를 당신의 이름에 붙이지 않았다. 그는 품삯을 위하여 일하는 목수였으며 부림을 받은 종이었고 평범한 생활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깝다고 하는 것을 실증해 보여 주셨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64.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성을 쓰셨다. 주님께서서는 실제로 인성을 소유하셨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47.

가? 3:16.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인성은 신성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 —성경주석[E. G. 화이트] 5권, 1129.

## 4. 구속하시는 사랑

가.

가? 3:16, 17; 4:10; 19:10.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죄를 위하여 갈바리에서 못박히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의 죽으심으로 드러나야 하였다. 주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세상에 제시해야 하셨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지만 인간들의 유전을 통하여 그 본래의 진리가 가리워지고 그 진리의 창시자로부터 떠나 세상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영문시조, 1893.5.8.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부조와 선지자, 69.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지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탄원하시는 모습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91.

가

가? 14:7; 4:8.

“인간이 기만자의 능력아래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와 인간의 통치권이 원수에 의해 빼앗겼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도 회복되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통하여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때가 올 것이며 새롭게 된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성경 메아리, 1893.7.15.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부조와 선지자, 342.

### 5. 구속이 성취됨

가.

가?

53:11 [ ]; 17:24.

“떨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곳에 보존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저항해 왔고, 용의 호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가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교회증언 5권, 475.

가?

13:12; 5:8; 3:1, 2.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에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에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그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04.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07

1. 무엇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놀라우신 모습을 드러내는가?
2.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에 관하여 때때로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가?
3.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왜 비밀인가?
4. 구속의 경륜은 얼마나 심원한가?
5. 구속받은 자들은 얼마나 영광스런 재 연합을 바라볼 수 있는가?



# 홍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 11:7].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 부조와 선지자, 102.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90-110.

## 일요일

2월 15일

### 1. 죄악으로 충만함

가.

가

가? 6:5, 12-14, 17.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시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 부조와 선지자, 92.

가? 24:38; 17:27.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죄는 그 자체가 합법적인 것을 악용한데 있었다. 저들은 저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더럽혔다. 식욕의 방종과 저열한 정욕은 저들의 상상력을 철저히 더럽게 했다. 홍수전의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들이 되고 그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며 지배를 받고 있었다.” - 월고모음 19권, 246, 247.

## 2. 믿음의 사람

가.

가? 6:8; 7:1.

“에녹과 노아, 그리고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했으며 주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경시했다.” -영문시조, 1897.2.11.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흉악한 죄악과 도덕적인 부패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경멸과 조롱 가운데서도, 전 세계의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리스도를 반영함, 322.

가? 11:7;

2:5.

“노아는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준비해야 하였다. 그는 전도할 뿐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하였다. 그의 단순함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순종은 그가 받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함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였다. 그는 거룩하신 건축가의 지도 아래 그 독특한 건물을 세우면서 반석처럼 의무에 확고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영문시조, 1879.2.27.

“방주가 마른 땅에 지어지고 노아는 믿음으로 행했으며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짐승들이 들썩 들썩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런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며 짐승과 새들은 피난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런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신하고 있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문을 닫으셨다. 거기서 그들은 비가 오기 전에 방주 안에서 일주일일 그대로 지냈다. 그때 이 악한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던가!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칠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원고모음 19권, 133.

## 3. 노아의 방주

가. . 가 가? 6:14-16.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 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船體)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것은 삼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나 산다릅 나무였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工程)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재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전하실 수 있으셨다.” - 부조와 선지자, 92-95.

가? 6:3.

가가 가?

“[노아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 부조와 선지자, 96.

“노아의 믿음은 경외심의 발로였으며 이는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경외심으로 강렬해 졌으니 이는 그를 감동시킨 것이 겁 많은 두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악인들의 반대와 증오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주변의 불신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억압하거나 그의 기별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깨달았다.” - 영문시조, 1895.4.18.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기별을 믿는 목수들을 고용했으나 그들은 홍수 전에 죽었으며 노아가 개심시킨 다른 사람들은 타락하였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504.

## 4. 홍수가 땅을 덮음

가. 가 .  
7:7-9. 가?

“방주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부분이 완성되었고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저장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증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 아니라 야수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97, 98.

“홍수 당시 멸종된 아주 큰 동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감퇴되고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연약한 인간이 관리할 수 없음을 아셨다.” -영적선물, 4권 1부, 121.

가? 7:17-24.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이었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여덟째 날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나지막한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우상] 숭배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떨며, 그들의 부패와 우상숭배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98, 98.

5. 홍수 동안과 그 후의 땅

가. 가 가? 3:20.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그들이 그럴 능력만 있었다라면 그분을 권능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을 것이다.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애원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양심이 각성되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께 열렬하게 구원을 호소하였으나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다. 그 무서운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부조와 선지자, 99, 100.

. 가 가? 8:15 - 19; 9:8 - 16.  
가?

“홍수 당시에 사람들과 짐승들은 또한 땅의 높은 곳에 모이고 물이 없어지자 죽은 시체들이 평야에는 물론 산과 언덕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땅의 표면은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체들이 부패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땅을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드셨다. 주께서는 물을 말리실 목적으로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강력한 힘으로 그것들을 옮기셨으며 어떤 경우에는 큰 눈사태처럼 산꼭대기들을 옮기시고 전에 보이던 시체들이 안보이도록 언덕과 산들의 모양을 변화시키시고 나무와 돌과 흙으로 죽은 시체들을 묻으셨다.” -영문시조, 1879.3.1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14

1.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홍수 전의 죄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2. 왜 우리는 노아의 모본을 본받도록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가?
3. 노아는 어떤 상태에서 노력했는지를 묘사하라.
4. 왜 어떤 동물들은 방주 안에 보존되지 못했는가?
5. 오늘날에 조차 홍수의 무슨 증거들이 땅에 남아있는가?

# 하나님의 율법-십계명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 19:7].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8.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33-450.

일요일

2월 22일

## 1.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가.

가? 119:142, 151, 17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에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06.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오류가 없다. 무한한 지혜와 성결과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측정하시는 표준으로 우리를 이끌며 함께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두가 도달하여야 할 표준이다. 아무도 불확실하게 걸을 필요가 없다.” -하늘 조정에서, 137.

가? 5:17, 18.

“[하나님의] 이 율법은 여호와의 보좌가 지속하는 한 고귀한 특성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9.10.10.

## 2. 율법을 대적하는 사단의 원한

가.

가?

12:17.

“사단은 그의 모든 교묘한 능력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킨다. 그는 거짓과 철학을 통하여 자신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적하는 동일한 반역을 일으키도록 인간들을 고무시킨다. 사단은 그가 속일 수 없는 자들을 증오한다.” -영문시조, 1895.11.14.

가? 3:9; 2:2; 3:13.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 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 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

“거룩함을 주장하고 율법의 구속하는 의무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원한이 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곧 그들의 마음에는 원한이 일어난다. 그들은 율법이 폐하여짐을 믿는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표준이 무엇인가? 율법을 경시하는 이런 일은 대기만자가 하는 일이다. 만일 사단이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릴 율법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인간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의 표준을 세울 수 있으며 인간들을 범죄와 멸망의 길로 돌이킬 것이다.” -영문시조, 1888.2.10.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사단의 사업은 거룩한 율법을 무효하게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그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파괴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품성의 큰 표준을 내 던짐으로 사단은 남녀들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표준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 [롬 4:15]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사단은 그가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자칭 그리스도교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1.26.

### 3. 심판의 표준

가. 28:9. 가? 12:13; 가? 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며 정확히 말해서 생명과 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모든 원칙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은 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원칙들을 믿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그의 이웃에 대한 그의 의무를 행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데 이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영문시조, 1894.2.26.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위대한 표준이며 각 사람의 공언하는 바와 주장하는 바를 측량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울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영문시조, 1888.3.30.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의의 표준이다... 인간은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요구된다.” -영문시조, 1894.2.26.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십계명은 열 가지 약속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와 본질이 들어 있고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구원의 조건들이 요약되어 있다.” -성경주석[E. G. 화잇] 1권, 1105.

가? 12:14; 2:11, 12.

“하나님께서서는 한 법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의의 위대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공흠을 업신여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들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대에게 경고하셨다. 그분께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존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대에게 개인적으로 명하셨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8.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장 명백한 진리에 그들의 눈을 감으며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그들의 발로 짓밟는다. 그러나 태초에 제정되고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영문시조, 1886.8.5.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2.



## 4. 즐겨 순종함

가.

가

가? 19:16, 17; 18:18 - 20.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始祖)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정로의 깨단, 62.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해야 하지만 세상의 시장(市場)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불 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 실물교훈, 117.

가? 1:19; 5:6.

가? 2:3, 4;

5:2, 3.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 시대의 소망, 189.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면 생명의 활력과 능력이 심령에 주어진다. 태양처럼 영속적인 사업은 그 일꾼과 그가 활동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보잘 것 없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하나님께 가납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613.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성화에 대하여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인의 제물과 같은 정도의 가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인의 제물을 취급하듯 하신다. 참된 성화의 유일한 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참된 사랑은 언제나 순종을 생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순종은 참된 사랑의 표징이다.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는 하나이시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의 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서로를 사랑할 것이며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킬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7.10.26.

### 5.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

가. 가? 3:6 [ ]; 1:17; 16:17.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환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 *시대의 소망*, 762, 763.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변경시킬 수 있으셨다면 예수께서 우리 세상에 오사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주께서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기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0.6.10.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히 하셨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보존하기 위함이며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 *실물교환*, 314.

가? 31:18; 가? 가?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며 비록 인간에 의해 경시되고 멸시되고 거절을 당한다 해도 여호와와의 보좌처럼 영원토록 견고히 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1.9.24.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21

1.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줄 것인가?
2.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위한 사단의 책략은 무엇인가?
3. 심판날에 표준은 왜 필요한가?
4.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왜 순종이 중요한가?
5.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남인도의 연합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인도는 남부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명칭은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이며 힌디어로는 바라트(Bharat)라고 한다. 아시아 문명의 원천으로 불교가 발생한 곳이며, 천축(天竺)이란 이름으로 예부터 알려진 곳이다.

1974년 8월 15일 3세기 반에 걸친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한 민주국가로, 영국 연방을 구성한다. 국토면적은 세계 7위이며, 인구는 세계 2위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 · 인도대평원(타르사막) · 대칸고원 · 해안과 도서의 4대 지형구로 되어 있다.

남인도는 폰디체리, 안다만과 니코바 섬들, 락사바위프 섬들은 물론 안드라 프라데스, 카나다카, 케라라, 타밀 나두의 남부 주[州]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1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세상에서 그 다양성과 연합성, 거대한 성장과 빈곤성을 가진 나라로서 그 특이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국가이며 세상의 이교도의 종교를 가진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에는 60년대 후반에 개혁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역사에 비추어 인도 전역에 걸쳐 새로운 대회들이 조직되었고 여러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소수이거나 전혀 없는 지역도 있다. 남인도 연합회는 그대들 모두에게 그대들의 마음이 이 연합회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마음 문을 열 것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우리 형제들은 이 이교 국가에서 중단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사업에 임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도전에 처하고 있다. 재정의 빈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배와 집회를 위한 건물의 임대료와 교통비와 우편료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충실한 노동으로 봉사하고 있다.

남인도 연합회를 위한 그대들의 연금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의 사명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위탁하신 방법이다. 그동안 수합한 대부분의 자금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 왔다. 지금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편리하고 더욱 중심이 되는 지역에 연합회 선교본부를 건축하는 일이다.

이 요구되는 남인도 연합회를 기억하고 관대한 연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란다. 교회의 사업을 위해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국면으로든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힘을 쏟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빈다.

- 세계 대총회 아시아 지회장 -

#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3].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 되어야 한다.” - 선지자와 왕, 678.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250-252.

일요일

3월 1일

## 1. 즐거운 날

가.

가? 23:3; 91:1; 92:4, 5; 58:13, 14.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주님께서는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욕을 당하셨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개혁을 요청하신다.” - 교회증언 6권, 353.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밝은 태양이 비치는 수풀 속에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있고, 그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대화함으로 그들의 활동적인 마음에 무엇인가 양식을 줄 수 있으며,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에 그들의 주의를 돌림으로 사랑과 존경을 그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다.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584, 585.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위(無爲)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 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 시대의 소망, 207.

## 2. 안식일은 고대에 지켜졌다

가.

가? 16:23 - 28.

가

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신 떡을 준비함에 있어서 행해져야 할 어떤 것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시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주께서는 이 일이 예비일인 금요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날에 그들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아야 했다.” - 원고모음 13권, 292.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 있지만 이 때에 처음으로 안식의 날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 시대의 소망, 283.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어텐에서 죄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날을 지켰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53.

가? 2:1 - 3; 20:8 - 11.

“안식일은 그 기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한 백성이 있기 전에 에덴에서 제정되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타락 전에 에덴에서 제정되었다. 창조주께서는 ‘내 성일’ [My holy day] 이라고 칭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the Lord of the Sabbath] 이라고 선언하셨다.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류만큼 오래 되었으며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 영문시조, 1894.11.12.

“안식일 제도는 땅의 기초가 놓여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을 때 만들어졌다. 율법의 다른 아홉 가지 계명들처럼 영속적인 계약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력의 기념이며 그분의 고상한 사업을 회상시키는 것이다. 넷째계명은 율법에서 거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른 크고 도덕적인 계명들을 행하는 것처럼 동일한 신령성을 지니고 있다.” - 영문시조, 1894.1.8.

### 3. 변경코자 시도함

가.

가? 7:25.

가?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들의 변경이 금지된 유일한 법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바 대로 세속적인 권세는 세속적인 정부의 법들을 적합하게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언에서 법왕권은 계획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영문시조, 1894.11.19.

“법왕권은 세상과 기독교를 위하여 안식일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해 왔으며 부정한 발 아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짓밟으면서 이 거짓 안식일이 높임과 존귀함을 받게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의 표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격하시키실 것인가? 주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안식일 대신에 인간이 만든 제도를 받아드리실 것인가? 아니다. 인간들의 편이나 유익이 하나님의 주장들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해럴드, 1884.3.18.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는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0]고 명하셨다. 이 명령은 그 창시자의 모본과 그분 자신의 음성으로 선포되었고 십계명의 바로 중심부에 놓여져 지키게 했다. 그러나 법왕권은 이 거룩한 법령을 제거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쉬지 않으시고 ‘태양의 존경할만한 날’로서 이교도들에 의해 그토록 오랫동안 숭배해온 축제일이 되는 한 날로 바꾸었다.” -영문시조, 1882.9.14.

가? 56:2 - 7; 58:12 - 14.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들은 거할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다.” -교회증언 6권, 265.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 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비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선지자와 왕, 678.

## 4. 신약성경에 있어서의 안식일

가.

가? 4:16, 31; 2:27, 28.

“안식일 계명은 여호와와 불변의 명령들 가운데 십계명의 바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설교단에서 아직도 하늘의 주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안식일을 대적하는 모욕적인 외침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대 유대인의 안식일’ 처럼 비난하고 있다.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유대인이 존재하기 전 에덴에서 제정되었다는 것과 또한 구주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막 2:27]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넷째 계명은 시내산의 우뢰와 장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 교훈의 다른 아홉 계명과 함께 선포된 것이며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것은 ‘증거궤’ 라고도 불리우며 그 덮개인 속죄소 아래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이 있다.” - 영문시조, 1894.1.8.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는 율법의 위엄성을 감소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 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 시대의 소망, 206.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무의미한 규례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일을 더럽히고 있었다.” - 시대의 소망, 287.

가? 23:54 - 56; 13:42, 44; 16:13; 17:2; 18:4.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놓지 않았다. 넷째 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의 신성성은 여호와와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일 3:4-6)고 하였다.” - 성화된 생애, 6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남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근거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치욕을 돌린다.” - 영문시조, 1893.10.2.

## 5. 새 땅에서의 안식일

가.

가? 66:22, 23.

“하늘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교훈들을 기록한 두 돌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충성심의 표징이라고 선언하신 안식일이 십계명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그 신성함은 영원에 이르며 이는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르러 당신 앞에 경배하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영문시조, 1898.4.7.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283.

가 가?

5:11 - 13; 15:2 - 4.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음성을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시 107:8)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교회증언 5권, 318.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1.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27

1.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2.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기념이며 왜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3. 왜 안식일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초점으로 부상될 것인가?
4. 신약성경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의 무슨 모본들이 있는가?
5. 하나님의 참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 의문의 율법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5].

“우리는 의문의 율법 속에 모형과 그림자를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그것들이 실체를 만날 바로 전까지 있어야 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0.7.15.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63-373.

일요일

3월 8일

## 1. 의문의 율법이 폐지됨

가. “ 가? 3:19;  
9:9, 10; 10:1.

“백성들의 교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율법을 의문의 율법과 혼합하고, 의문의 율법 (ceremonial law) 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 (moral law) 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무지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두 율법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명백하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까지 모형과 그림자의 율법이고,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 실체를 만났을 때 그쳤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와의 율법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보좌처럼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유대인들이 그분의 죽으심의 모형이었던 소제와 제물을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드림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 영문시조, 1886.7.29.

가? 2:14, 15.

“폐지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 [골 2:14] 셤다. 바울은 그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엡 2:15] 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희생과 의식을 위하여 주신 이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 영문시조, 1884.9.4.

## 2. 일곱 날의 의문의 안식일들

가. “ ”

1. 유월절 주일의 첫째 날: 출 12:15; 레 23:5-7; 민 28:17, 18.
2. 유월절 주일의 제칠일: 출 12:16; 민 28:24, 25.
3. 칠월 곧 그달 첫째 날: 레 23:24, 25; 민 29:1.
4. 칠월 곧 그달 십일: 레 16:29-31; 23:27-32; 민 29:7.
5. 칠월 십오일: 레 23:34, 35; 민 29:12.
6. 칠월 이십이일: 레 23:39.
7. 또한 “칠절절”로 알려진 오십일째 되는 날[오순절]: 레 23:15, 16, 21; 신 16:9, 10.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세 연례적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79.12.11.

“ ”  
가? 2:14-17.

“우리는 의문의 율법 속에 모형과 그림자를 갖고 있으며 이것들은 그것들이 실체를 만날 바로 전까지 있어야 했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체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표상한 희생제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고귀한 율법은 변경될 수 없었다... 십계명의 교훈들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 십계명은 모형이 아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7.15.

“하나님의 어린양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다. 모형과 그림자, 예물과 희생제물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9.10.10.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은 그쳤다. 의문의 율법은 폐하여 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십계명의 율법은 굳게 세워졌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고 그 요구들로부터 일점일획도 손상되지 않았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6.26.

### 3. 본체의 그림자

가. 5:39.

가? 43:11; 13:4;

“구약과 신약 사이의 대립,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대립, 유대인의 요구 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 사항과의 대립, 등의 대립이 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앞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복음의 약속은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고, 히브리인들도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 영문시조, 1882.9.14.

“유대인들의 제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속성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모형과 그림자와 표상 속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명과 봉사를 통해 성취되어야 했다.” - 영문시조, 1894.10.10.

가

[ 가 ]

가? 2:21.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規例-ordinance)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희생제물과 봉사는 모두 폐지되어야 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1.9.27.

“의문의 율법은 훌륭한 제도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여 마련하신 것이었다. 표상적 제도의 전 체계는 다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담은 여호와와 율법을 범한 그의 죄의 형벌을 받는 죄없는 짐승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았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75.5.6.

“그리스도의 소원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 예식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꼭 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해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구속력이 없게 되어버린 예식과 의식들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었다. 그런 의식들을 계속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모욕이 될 것이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6.14.

## 4. 두 율법 사이의 차이점

가. \_\_\_\_\_, \_\_\_\_\_ 가?  
 31:18; 10:1, 2.  
 가? 31:24 - 26; 3:10.

“케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수로 십계명을 새기신 돌비들이 있었다. 케는 특히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러므로 언약케나 증거케라고 불리웠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며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다.” - 영문시조, 1880.6.24.

“[증거의]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케 속에 놓여졌다.” - 성경주석[E. G. 화잇] 1권, 1109.

“모세는 의문에 관한 율법을 받아 책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은 두 돌비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어 법케 안에 거룩하게 보관되었다.” - 부조와 선지자, 365.

. . . 9:9, 10; 10:1, 2; 23:21; 3:2; 8:14.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 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다.” - 부조와 선지자, 364, 365.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규례, 법도와 희생 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수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의 책임하에 두되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법케 곁에 두었다.” - 부조와 선지자, 466.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유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히스기야의 치세를 그처럼 번영하게 만든 것은 율법의 준수, 특히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이룬 언약의 책에 주어진 법도를 준수한 까닭이었다.” - 선지자와 왕, 392.

5. 유일한 참된 희생제물

가.

가?

12:26, 27; 1:29; 5:7.

“[유월절의]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 *시대의 소망*, 77.

가? 23:27 - 32; 22:12 - 14.

“그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유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단 앞에서 계시서 간단없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로 상징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사람이 치지 않고 주님께서 치신 참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시다. 유대인의 성막의 상징적인 그림자는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날마다 드리는 것과 해마다 드리는 상징적인 속죄는 이 이상 더 드릴 필요가 없으나 끊임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중재자를 통하여 속죄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계시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흘리신 피를 바치고 계신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343, 344.

“우리는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과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잘못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에 개입되게 해서 안 된다. 각 사람은 형제의 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므로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생애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교회증언* 9권, 21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33

1. 왜 의문의 율법이 첨가되었는가?
2. 의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왜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가?
3.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의식들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4. 두 율법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5. 오늘날 속죄일을 설명하라.

#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 9].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好意)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며 주님께서는 죄인의 대치물과 담보물로서 하늘 법정에서 계신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98.

참조할 연구교재: 사도행적, 557-567.

일요일

3월 15일

## 1.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

가.

가? 59:1, 2.

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시대의 소망, 25.

“[인간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17.

가?

가? 5:12, 15; 6:23.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경륜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 끝없는 밤의 흑암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 28.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의 길을 제공하였으며 그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다.” -영문시조, 1887.12.15.

## 2.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남

가. 가 가? 2:25.

가? 3:23.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러싼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 *실물교훈*, 310, 311.

. 가 가? 3:7. 가?  
3:21.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로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써 저희 죄를 가리우려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가납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하늘 베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 *실물교훈*, 311.

###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

가.

가?

103:13; 63:9; 4:10.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사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동정하고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는 아직도 잘못된 자들을 사랑하고 동정하시며 그가 친히 저들을 이끌어 거룩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는 마귀의 세력이 모든 영혼과 투쟁하며 승리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아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셨다.” - *오늘의 나의 생애*, 300.

“[주께서는] 세상에 계셨을때 늘 인간의 비애와 접하셨다. 비록 지금은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천사들에게 숭배를 받고 명령이 즉시로 준행되지만,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변할 줄을 모른다. 그것은 불변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대의 모든 시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대가 홀로 시험과 싸우며, 악을 저항하며, 결국은 짐과 슬픔에 눌려 버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 *교회증언 2권*, 271.

가? 4:9, 10, 16, 19; 3:16, 17.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동정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셨다. 그는 인간과 접촉하시고 고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99.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스러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무수한 증거들과, 결길로 나가는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절한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자애로운 동정에 대한 무수한 증거를 식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 *교회증언 4권*, 461.

“[세상의 구주께서는] 저주를 받아 완전히 시들고 망가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는 비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까이 하기 위하심이었다. 당신의 인성의 긴 팔로는 인류를 꺼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들고 계시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인간적인 노력과 협력하게 해 주신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9.11.21.



## 4. 넘치는 은혜

가.

가? 1:12; 3:9; 2:4; 7:25.

“그리스도는 속죄하는 희생제물이시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부요하심을 떠나시고 영예도 버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생기게 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이 사실을 인간이 받아들일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모든 부요하심을 댓가로 치루시고 인성을 취하셨으며 그분 스스로 겸비하게 되셔서 빈곤과 굴욕의 생애를 보내셨다. 그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성숙하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질 수 있다. 우리는 사단에게 저당 잡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다만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 - 청년 지도자, 1895.9.5.

가? 1:21; 2:11 - 14.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롬 5:1)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장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둬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 사도행적, 476, 477.

## 5.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가. 가? 2:8-10;  
4:16; 12:28.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실물교훈*, 96, 97.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그대의 순종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그대의 권리를 입증할 것이다. 하나님은 품성의 신뢰할 수 있는 탁월함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요구하심의 표준에 도달할 자는 누구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 *그리스도인 교육*, 118.

가? 1:6; 12:12-14.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64.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39

1. 무엇이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선천적인 상태를 드러내는가?
2. 아담과 하와가 일단 죄를 지음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3.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대하여 더 깊이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는가?
4.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가지신 개인적인 큰 관심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5.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어떻게 역사하는가?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 61:10].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의도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의를 옷 입지 않는 한 우리들의 죄상, 우리들의 연약성, 우리들의 인간적인 불완전성은 우리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3.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뽑은 기별 1권, 359-369.

일요일

3월 22일

### 1. 우리의 의: 더러운 옷

가.

가? 3:12, 13.

가?

“각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죄를 짓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고 변명해 왔다. 그러나 ‘나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핑계를 하나님께 걸코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구세주가 서 계시며 그분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시고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산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1.5.28.

가? 9:20; 64:6;

16:15.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 -실물교훈, 151.

## 2.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

가.

가?

3:3, 4.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며 천사 앞에서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면 예수께서는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속 3:4]고 말씀하신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 영문시조, 1890.6.2.

“더러운 옷은 벗겨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죄과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케 되어 여호와 앞에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로 옷입었다.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옷의 변화인가!” - 설교와 대화 2권, 211.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 시대의 소망, 555, 556.

가? 22:11, 12: 3:18; 19:8.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 (계 19:8)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 (엡 5:27)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 [계 19:8]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이다.” - 설교교훈, 310.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88.

## 3. 칭의: 용서

가.                                  가?    3:25;    3:13.  
     가?    3:24, 26; 5:1;        1:8, 9.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를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 성경주석[E. G. 화이트] 7권, 908.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사단과 죄악의 자녀인 반역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백성의 위치로 나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입양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죄인은 그의 죄를 그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이가 담당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 - 믿음과 행위, 103.

“칭의(稱義)는 정죄 곧 유죄선고(有罪宣告)와 반대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역사한다.” - 믿음과 행위, 104.

가?

5:14; 8:11; 15:4.

가? 10:26 - 29.

“죄인이 구원 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서이며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정죄를 받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범법자들이기 때문이아.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값없는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 영문시조, 1886.7.29.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놀랄 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96.

“죄를 용서함 받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의로움 가운데 남아 있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그 자신을 차단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죄들은 그에게 가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0.12.9.

4. 성화: 하늘을 위한 적합성

가. [ ] 가? 5:46-48; 5:23.

“진리로써 거룩함을 받은 자는 자제할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 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신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 35.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 *사도행적*, 560.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입혀주시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리들은 성령의 감화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395.

가? 1:15, 16; 13:14.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식과 덕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높이 올라오라, 거룩하게 되라, 더욱 거룩하게 되라’ 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다.” - *치료봉사*, 503.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게 할 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수단은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큰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큰 위안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고상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103.

5.

가. 가? 2:12, 13;  
1:5 - 11.

“ 가  
가 .” -  
, 53.  
“ 가?  
.” - , 1893.10.1.  
“ 가  
가 .” - , 1888.3.9.  
가? 3:18;  
12:2; 3:5; 19:7 - 9.

“ .” - , 1898.1.25.  
“ .” - , 1888.1.6.

6:45

1. 가?
2. 가?
- 3.“ ” 가?
- 4.“ ” 가?
5. 가?

# 첫째 안식일 연금



1월 3일  
공고의  
카사이-옥시덴탈  
대회를 위하여  
(4페이지 참조)

2월 7일  
대총회  
구호부를  
위하여  
(30페이지 참조)



3월 7일  
남인도  
연합회를  
위하여  
(51페이지 참조)